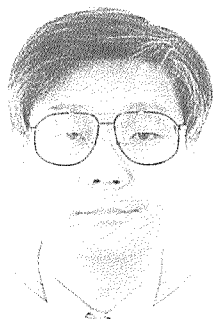


燈由는 누구를 위하여 옷을 벗는 가?



노 중 석

〈LG-Caltex 정유 기술개발기획팀장 · 이사〉

女の道에 눈물이

야속한 당신, 好男씨
오늘도 허벅지에 침을 놓습니다
금삼의 피보다 진한 눈물이 흐릅니다
이 몸은 당신의 불이였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불덩이였습니다

스커드와 토마호크가 빗발치기도 했던
처용의 고향 이역만리 아라비아로부터
온갖 물새의 카타르시스 세례를 받으며
당신의 품에 안긴지 어언 30년
저는 오랫동안 석유의 프리마돈나였습니다
한반도의 밥과 라면을 도맡아 끓여 왔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사리 손도 할머니 손도
따뜻이 녹혀드려 왔습니다
농부의 '딸딸이' 경운기도 끌어 왔습니다
연탄가스로 시달리던 사람들을 위해 제 몸을

아낌없이, 재 하나 남기지 않고 태워 드렸습니다
장안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언젠가 후세인의 콧수염이 TV에 나타났을 때
온 동네 이줌씨들이 주유소에 장사진을 친 것도
저와의 끊지 못할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석유 제품 중에서는
가장 오래전부터 당신의 사랑을 받은
석유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때로는 휘발유의 아들거림과
때로는 경유의 화끈함과
당신의 바람끼는 견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그래도 당신의 가정을 위하여 살아온 것은 이 몸이요
그리고 농촌의 영농 장비를 위하여
손발이 부르드도록 일해온 것도 이 몸이외다
또한, 페인트나 바니시를 바르기 위한 용제로서도
살충제와 농약으로서도

그야말로 당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일체의 투정없이
당신만을 바라 살아왔습니다

好男씨
당신은 예나제나 女の道(여의도)의 왕자님이십니다
저는 당신 한마디에
서울로, 제주도로, 어느 곳으로든
오라는 데로 오고 가라는 데로 갑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어제에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야속합니다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세월이 가고 새 년(年)들이 들어서면서
당신은 휘발유에 경유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울고 싶습니다

바가지 아니 굶으니

저는 휘발유처럼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인화점이 실온보다 훨씬 높아(40°C 이상)
화재의 위험도가 낮습니다
땡 수도 9~13 정도로 빠지지 않는 몸매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와 앉은
주부로서의 안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을음 및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매일같이 목욕탕을 들랑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는 곳은 옷 벗는 온도가 150~270°C이나
야한 것을 좋아하는 당신을 위하여
가급적 낮은 비등점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것보다 좀 더 깨끗해지려고
유황분이나 기타 불순물을 좀 더 제거하려고
당신의 女の道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옥탄값을 올리지 못하는 다혈질같은 성질때문에
휘발유로부터 푸대접 받는 파라핀계 땡들을
저는 당신의 분부대로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등유의 파라핀계 땡들은
휘발유의 나프텐계나 방향족계 땡들처럼
요염하거나 앙큼하지는 않고
솔직하고 화끈하게 불태워 줍니다
그걸 발연성(發煙性)이 좋다고 하나요?
아줌마는 아해지면 안되나요?
高年 휘발유는 그것을 옥탄가가 낮은 것이라
코웃음치고 있지만
취사용·가정용 배필로는 오히려 찰떡궁합이랍니다

당신이 야속하다는 것은 요즈음 저를
너무 모른 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일 뿐입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는 등유로서의 성숙미는
짜릿하지는 않아도 화끈하고
각종 첨가제들의 냄새를 풍기는 대신에
고아한 체취를 내고,
빨강, 노랑 등의 색깔로 요란스럽게 하기 보다는
은은한 無의 자연색으로 치장을 하고
복잡한 연소구조를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밝힐 것 다 밝히고
벗을 것 다 벗고
그러면서도 채도 그을음도 남기지 않는
그야말로 바가지도, 뒤끝도 없는
천상배필감이 아닐까요?
그런데 한가지, 나이를 먹어갈수록
高年(휘발유)에 대한 질투심은 없앨 수가 없군요

옥망이라는 이름의 등유

자나 깨나 바라옵기는
그대 好男의 품에서 자라온 제가
당신의 가정을 지켜 온 가장 알뜰한 연료임을

잊지 말아주시고

저도 TV에 한번 CF 모델로 출연하게 해주십시오
온 동네 아줌마들은 모두 제 팬들이랍니다

저를 취급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저도 불씨를 당게 되면
몸이 달아오르게 되는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저도 타오르는데 프로가 되었으니까요
별장 폐치카의 두툼한 장갑에 저를 뿌리는 것도
활활 불 붙는 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불이나 성냥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의 유혹이 보이기만 한다고 해서
별장계 달아오를 만큼 지조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는 휘발유와는 달리
여간해서는 쉽게 옷을 벗어 던지지를 않는답니다
그렇게 쉽게 氣化해 버리는 것은 바로
바람끼 농후한 高年 휘발유나 하는 것이지요

혹시, 저의 몸에
담배불이나 성냥불이 떨어졌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옵고
주위의 모래나 흙을 뿌려주십시오
그렇다고 물을 끼얹으실 생각은 아니 하여 주십시오
물위에서도 불을 태울 수 있는 재주를 부리니까요
원하지 않는 불씨가 제 곁에 다가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덮혀질 시간을 주지 말 것이며,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켜 주는 일입니다
쇠로 만든 바게쓰를 뒤집어 씌어도
제풀에 불이 꺼지기도 하니깐요
그리고 더운 여름날
히터용으로 사다두었던 제가 필요없을 때에는
서늘한 그늘 지역에 저를 놓아두십시오
태양의 빛을 받으면
대부분의 연료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쓸데없는 불순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답니다
그 불순물은 당신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다시 저를 찾게되어 불을 당기게 될때
끈적끈적한 이물질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지도 않으면서
괜스레 햇빛만 쬐게하는 것은 속절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불타고 싶은 욕망이 넘칩니다
이렇듯 불타고 싶은 년(燃)의 화신이 된 것은
파라핀계병 때문입니다
옷을 벗고 뜨겁고 화끈하게 타고 싶습니다
냄새도 재도 남기지 않고
저 멀리 높은 하늘을 향해 오르고 싶습니다

단 한 번 만이라도

어느 날엔가
저의 분신은 햇님의 도움으로
초록빛 식물들과 사랑을 속삭이고
탄소동화 작용하고 열매들도 맺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당신의 눈길을 끌고
당신의 몸에 잉태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다시 뽀~옹이 되어
당신 곁을 떠나게 되고
저는 영원히 윤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好男은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애원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그 누가 등유의 생을 살기나 하겠습니까?
부디 평안하시고
好男이신 수퍼맨 아빠의 품을
언제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好男에게 바치는 등유의 순정이며!